주된학생들의 침묵과 광황, 우연히 발견한 광화문은 학교의 정원을 더욱 아름다워 번지게 되었다.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'광화문'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정원을 찾아가던 경로로 쓰다. 이는 학교의 정원이 더 이상 단순한 정원이 아닌, 학문과 예술의 결합으로 거듭나는 곳을 말한다.

한편, 학교의 주요 건물들은 그 길을 따라 대학도서관, 교통 사무소, 실험실, 창의관, 대강당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. 이들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동하며, 학교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.

'광화문'이라는 이름은 학교의 정원을 연결하는 길이자, 학생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길이기도 한다. 학생들은 이 길을 따라 이동함으로써, 학교의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.